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중동 지역 긴장 고조..최고가 랠리 멈춘 미국증시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하락: 최고가 랠리 제동
- 미국-이란 협상 교착 중 중동 지역 긴장 고조
- 고용-서비스업 업황 지표 호조도 달러금리 상승 요인

### Summary

#### 미국증시 주요지수 일제히 하락

6월 3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 이란이 쿠웨이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군사 충돌이 지속되는 양상을 띄자 국제유가가 상방 압력을 받음. 여기에 이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호조를 보였고, 미국 서비스업 지표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위험이 가시화됨. 이는 오르는 유가와 함께 국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21% 하락한 50,687.0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74% 하락한 7,553.68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89% 하락한 26,853.98에 거래를 마침. 다우지수는 닷새만에,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엿새만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멈춤. 중소형주 중심 러셀2000지수는 1.31% 하락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 지수 VIX는 1.84% 상승한 16.06에 마감.

(다우 -1.21%, 나스닥 -0.89%, S&P500 -0.74%, 러셀2000 -1.31%)

#### 이란의 주변국 공습: 중동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은 명목상 지난 4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편 서로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음.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케숨섬 통신망을 겨냥한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 내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 타격을 감행함.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 섬으로 이란 해군과 IRGC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케숨섬을 최근 수 차례 공격했음. IRGC는 또 이란 유조선에 향한 미군의 공격에 대한 대응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민간 화물선 '파나야호'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의 공격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IRGC의 주장을 반박함.

앞서 현지시각 1일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며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시사한 바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는 지속된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던 바 있음. 다만 실질적인 양측의 군사 충돌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지속되는 상황으로 관련 이슈는 여전히 유가와 금리를 매개로 한 시

장의 핵이 될 수 있는 상황.

### 미국 5월 민간고용 '기대 이상'

올해 5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고용은 전달에 비해 12만 2천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였던 11만 7천명 증가를 상회. 세부적으로 상품 부문 고용이 8천명 늘었고 상품 부문과 함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용이 11만 4천명 급증함. 교육, 보건, 의료, 무역, 운송, 공공서비스 등이 서비스 부문 고용 급증을 견인. ADP는 5월 고용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봤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고용이 이뤄졌다”고 평가함. 현지시각 5일, 미국에서는 노동부가 집계하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

### 미국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세 유지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5월 들어 개선세를 보이며 확장 국면을 이어감.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은 5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5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4월 수치보다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도 상회. 이로써 서비스업 업황은 23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상회해 확장 국면에 머무름. 세부적으로는 기업 활동 지수가 전달 대비 1.8포인트 상승해 57.7을 기록했고 신규 주문 지수는 3.8포인트 상승한 57.3을 기록. 고용 지수는 47.9로 전달 대비 낮아져 석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음. 가격 지수는 108개월 연속 상승세로 71.3을 기록, 전달보다 0.6포인트 오름. ISM 서비스업 조사위원회는 “이번 달 조사에서 패널들이 석유관련 제품을 가격 상승 품목으로 언급한 점이 특징적”이라며 “최근 3개월 연속 보고서에 기재된 상품 중 가격이 내려간 품목이 없었다”고 밝혀 시장의 인플레이 우려에 힘을 실음. 다른 집계 기관 S&P글로벌의 5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0.7을 기록해 확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은 소폭 하회. S&P글로벌은 “서비스 수요는 지난 3개월 연속 대체로 정체 상태로 올해 초 보였던 성장 탄력은 잃었다”고 지적.

전쟁 발발 이후 주택 시장 분위기는 악화되는 양상.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봄 성수기를 맞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4월 전체 주택 매출의 5.8%가 철회되었음. 매도 의사를 갖고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이를 거둬들인 비율이 5.8%에 이른다는 뜻으로 이는 코로나 초기 주택 시장이 냉각됐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악화하자 원하는 값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한 매도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는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후 상승세로, 현재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

## 특징종목

### 반도체 강세는 지속

마블 테크놀로지(+3.73%)가 전 거래일 32.53% 폭등한데 이어 추가 상승.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3.62%)CEO가 컴퓨텍스 2026에서 마블 스위치와 네트워크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차세대 1조달러 기업'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투자심리를 강하게 자극함.

이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5%), AMD(+4.02%), 인텔(+4.43%), 퀄컴(+3.81%), 온 세미컨덕터(+4.11%), 샌디스크(+6.71%), 웨스턴 디지털(+5.51%), 램 리서치(+2.7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19%), KLA(+3.91%) 등 반도체 밸류체인 내 대부분 종목이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39% 상승 마감. 특히 인텔(+4.43%)은 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CFO)가 장 초반 강한 CPU 수요를 언급한 이후 옵션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려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음.

다만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0.49%)이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 전분기 실적은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48% 증가한 221억 9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주당 순이익(EPS)은 2.44달러를 기록. 이는 222억 7천만 달러 매출을 예상했던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주당 순이익 측면에서는 2.40달러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를 상회. 브로드컴이 매출 단에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처음. 이에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시간외 거래에서 5% 내외 하락권에 머물다 낙폭을 두 자리수대로 점차 확대함. AI 관련 매출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프트웨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전체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읽힘. 회사의 흑 단 CEO는 "AI 반도체 매출의 가속 성장과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에 힘입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했다"며 "이 모멘텀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한편 브로드컴은 현재 진행 분기 매출을 약 294억달러로 시장 예상 285억 3천만 달러보다 높게 제시.

### 빅테크는 대체로 약세

빅테크 주가는 대체로 약세. 엔비디아(-3.62%), 마이크로소프트(-3.17%), 애플(-1.57%), 알파벳(-0.79%), 아마존 닷컴(-2.53%), 테슬라(-0.01%), 브로드컴(-0.49%)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 메타 플랫폼스(+4.24%) 정도가 상승. 메타 플랫폼스는 자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따르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했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 법원은 현지시각 3일, 메타의 중고 거래 플랫폼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힘. 메신저에 대한 규제 결정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메타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 한편 메타는 새로운 AI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메신저 챗봇 기능을 넘어 일정 예약과 주문 처리, 결제 지원, 판매 응대 등 실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 알파벳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내림세를 유지.

### 사모펀드/양자 컴퓨팅/비트코인 관련주 약세

스위스계 사모펀드 운용사 파트너스 그룹이 86억 달러 규모 사모펀드의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환매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따라 비상장 자산 유동성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사

모펀드 관련주 투자심리가 재차 악화. KKR&CO(-4.15%), 블랙록(-2.76%), 블랙스톤(-4.03%), 블루 아울 캐피털(-3.77%), 아레스 매니지먼트(-4.04%).

한편 최근 정부의 지분 투자, 육성 소식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이날은 동반 하락. 금리 상승이 전반적인 성장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최근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이 주가 낙폭을 키움. IBM(-7.17%), 아이온큐(-4.44%), 아킵 퀀텀(-10.02%), 인플렉션(-12.38%), 리게티 컴퓨팅(-10.36%), 디 웨이브 퀀텀(-7.89%), 퀀텀 컴퓨팅(-8.57%).

최근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이탈하고 65,000달러 선까지 하락하자 주식 시장에서 관련주도 동반 하락. 최근 가격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장기 보유자들마저 매도 행렬에 동참해 약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은 없는 상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스트래티지(-7.01%)까지 비트코인 매도에 나섰다 소식은 일단 단기 투자심리를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코인베이스 글로벌(-6.19%), 마라 홀딩스(-2.24%), 로빈훅 마케츠(-6.02%).

**이외 특징주**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스트라이크(-2.78%)가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 전분기 실적이 모든 지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현재 진행 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를 밑돌자 투자심리가 악화. 정규장에서 팰로앨토 네트웍스(-5.64%)를 중심으로 하락했던 지스케일러(-6.78%), 포티넷(-1.60%), 센티널원(-6.05%), 옥타(-7.89%) 등의 여타 사이버 보안주 전반이 클라우드스트라이크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는 양상. 위에서 언급한 사모펀드 관련 불안 재점화 역시 정규장에서부터 이어진 사이버보안주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할인 유통 업체 파이브 빌로우(+1.14%)는 마감 후 공개한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도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전환.

토미 힐피거와 캘빈 클라인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는 모회사 필립스 반 휴센(+0.85%)도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급락. 전분기 실적이 이익단에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넘어서지 못했고 연간 매출 전망도 기존 전망을 확인하는데 그쳐 실망으로 이어짐.

게임스탑(+6.02%)은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가운데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 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강세.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5.69%)은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강세. 회사의 CEO는 회사가 최근 10년간 가장 강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CAS(심장 절제 솔루션)이 세계 시장에서 78% 성장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은 8%p 추가 확대했다고 밝힘. 덧붙여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예상했던 수준 정도라고 밝힘.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협상 교착 속 긴장 고조..WTI 96달러대 회복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음. 이란의 쿠웨이트 공항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사망했고 바레인 군 당국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힘. 이란은 이를 앞선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은 앞선 미군의 공격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방위적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반박함. 이 같은 소식에 WTI는 배럴당 97달러대를 터치하기도 했음. 한편 메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면적 군사 행동에 복귀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말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41% 상승한 배럴당 96.02달러를 기록해 최근 월물 증가로 지난달 22일 이후 최고치에 마감. 브렌트유 8월물은 1.89% 상승한 배럴당 97.81달러를 기록.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97만 4천 배럴 감소해 지난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 원유 재고 감소는 6주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감소 폭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상황.

국제 금 가격은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1% 하락한 트로이온스 당 4,470달러대에 마감.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2% 넘게 하락, 온스당 73달러 후반대를 기록.

### 미 국채금리 일제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상승한 가운데 단기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고용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한편에선 서비스업 인플레이 전망이 확인돼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3.5bp 상승해 4.086%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5bp 상승한 4.491%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2.3bp 상승한 4.990%에 마감. 다만 10년물 4.5%, 30년물 5%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는 모습.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2.2%대로 전장 대비 낮춰 반영.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1%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6%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반영.

### 달러 강세..달러-엔 장 중 160엔 돌파

미국 달러화 가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이란의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자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529로 0.329% 상승. 지난 4월 8일 이후 약 한 달만의 최고치. 이날은 달러 강세와 함께 엔화 약세가 특징적.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외환시장과 관련,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일본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지적하며 “환율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경제가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적절한 속도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함. 그럼에도 엔 매도세를 꺾이지 않는 흐름으로 달러-엔 환율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장 중 160엔을 돌파.

화요일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 화요일 주간 거래 종가 1,516.40원 대비 2.60원 상승한 1,519.00원을 기록. 화요일 주/야간 거래는 휴장이었으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90원)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7.70원 상승한 1,533.20원을 기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